

2교 요한복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성경말씀: 요6:30-51

요한복음의 핵심: 1.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지난 두 주, 예수님의 기적 중 가장 위대한 오병이어 기적, 물질 보존의 법칙 위배, 바다 위를 걷는 기적, 중력의 법칙 위배, 우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다.

2.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처음에 사람들은 기적들을 따라서 그분께 왔다. 배불리 먹은 뒤에는 빵을 따라서 그분께 왔다.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오늘도 관심이 또 바뀐다. 특히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자리에서는 대면하는 것을 피하려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댄다.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 빵을 먹으러 왔다가 예수님이 27절 말씀을 하시자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이나?”고 물음. 우리가 알면 그것들을 하리라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29):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분의 일을 하게 된다. 일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오늘은 < >를 통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먹여 주신 참된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대중의 방향 전환

29절, 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자 무리들은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돌린다.

선생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표적을 보이려 하십니까?(30)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적어도 모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빵을 주어 군중을 먹였습니다(31).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 메시아가 오면 만나의 기적(출16)을 다시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면(29)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야 한다.

유대인들의 고질병: 표적 구하기(고전1:22), 마12:38-39

또 다시 ‘보면 믿겠다’는 주장, 그러나 보는 것들에 기초한 믿음은 반드시 패망으로 이끈다.

심지어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의 종들도 엄청난 기적들을 행한다(특별히 재림 때 살후2, 계13).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 믿어야 한다.

요6:31은 시78:24,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기록(31절), 아무데서나 인용함

주님의 말씀: 바르게 알아야 한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빵을 주셨다(32, 시78:24).

그러므로 모세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빵을 주신다(32).

과거의 만남은 육적 생명을 위한 물리적 기적, 그러나 그것은 끝났다.

지금 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적인 빵을 주려고 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빵이 무엇인지 말해 준다(33).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사람이다. 다른 역본들, 주는 것이니라.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의 것은 예표이고 지금 실체가 왔다.

백성의 반응: 그 빵을 주소서(34).

요4장의 수가성 여인, 영원히 솟아나는 물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군중도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빵을 얻어서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것만 추구 주님의 말씀(35), 내가 바로 그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것들(빵, 물질 명예 등)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일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1. 와야 한다(35), 2. 믿어야 한다(35).

그분을 알고 그분께 오는 것이 곧 믿는 것이요, 믿는 것은 곧 그분께 오는 것이다.

나에게 오면 주리지 않고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다(35).

그러므로 와서 믿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육신의 생명도 빵과 물을 몸속으로 받아들여야 유지된다.

같은 원리이다. 나를 너희 안에 받아들여야 연존하는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의 특징: 일곱 번의 I am. 1. 나는 생명의 빵이다(6:35). 2.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

3. 나는 양들의 문이다(10:7-9). 4. 나는 선한 목자다(10:11-14); 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26); 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6), 7.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15:1,5)

I am.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출3:13-14).

I AM THAT I AM.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I AM 즉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요1:1; 20:28의 도마의 대답)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37-40)

37절: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그분께 주신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분께 간다. 그러면 그분은 그를 내쫓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미리 아심), 사람의 책임(그분께 가야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영원한 안전 보장,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분께 주는가(44-45)? 무조건적 예정 아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39), 부활 아버지의 뜻(40), 이보다 명백할 수는 없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구원을 잃을 수 없다(39).

군중의 수군거림(41-42)

예수님의 말씀(41), 군중의 수군거림(41), 육에 속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

41절: 나는 하늘로부터 온 빵: 이것은 그분의 신성을 말한다.

그들의 마음에는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 그분의 형제들, 자매들,

그들이 알지 못한 것: 요셉은 양아버지,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처녀 탄생을 통해 이 땅에 나신 분, 예수, 죄들에서 구원하는 분(마1:21), 임마누엘 하나님(마1:23)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다시 설명하심(43-45)

43: 수군거리지 말라. 다시 설명하겠다.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올 수 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예정, 선택 아니다.

45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방법 기술, 이것은 사54:13 (혹은 렘31:33-34) 인용 즉 말씀을 들어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을 통해 그분께로 이끄신다.

그러면 죄인은 듣고 배우고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딤후3:16-17).

사람이 할 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와야 한다.

요5장,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동안 아픈 병자 고치는 일

구원의 방법: 예수님을 아는 것, 어떻게 5:38-40

군중은 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듣고 배우고 믿고 오려 하지는 않았다(롬10:17).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46). 본다는 의미 역시 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 몇 사람만 이끄시냐? 무조건적으로 예정된 사람만 이끄시지 않느냐? 아니다.

요12:32,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모두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다. 차별이 없다. 요3:16

만나와 예수님 비교(47-50)

예수님은 실제 빵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 빵이 하는 일보다 더 큰 것을 보여 주신다.

47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과거의 만남은 유대인들에게만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

그것을 먹은 자들 결국은 다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빵이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빵이다(51).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다.

만나를 매일 보내는 데는 하나님의 희생이 없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보내는 데는 하나님 편에서 가장 하기 힘든 희생이 있었다.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한다. 그래야 육신 생명 유지, 그리고도 죽는다(49).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 받아들이면 영원한 삶을 산다(50). 영원한 안전 보장
만나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신비한 빵, 이름: 이것은 무엇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이다.

만나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님도 마찬가지이다. 죄인들에게, 전적인 은혜

유대인들: 가서 그것을 거두어들여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밭에 밭힘

예수님도 마찬가지, 가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밭에 밭힘

결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마16:13-17,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영원이 여기에 달려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영존하는 생명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와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신다. 부활, 그분은 결코 하나도 잃지 않는다. 영원한 안전 보장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